

청년이여 도전하라 I

벤처경영학
이경묵 주임교수



벤처경영학, 후회 없는 선택

이경묵 교수는 인터뷰 내내 벤처경영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벤처경영학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경영학 수업은 창업에 대한 단순한 이론 수업만이 아니라 신제품을 만들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벤처에게 선보이도록 자문을 받는 등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교수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해 공동 창업의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똑똑한 서울대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의 성공 가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창업 인재를 육성한다!
이경묵 주임교수로부터 듣는 벤처경영학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가 화두로 떠올라 청년창업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창의적인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했다. 연합전공에 속해있는 여러 학과와 함께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창업 분위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창업할 때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만큼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이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연합전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창업 동지들을 만나 세계적 기업을 일궈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경영학은 창업의 전 과정에 대해 배우는 수업

그렇다면 벤처경영학은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까?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서 사업아이템을 찾고, 사업아이템과 자신의 역량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초기성장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 창업의 모든 과정에서 겪는 고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것이 벤처경영학의 수업 목표다. 필수 과목으로는 <벤처 창업

론>, <창업론 실습>, <기술 트렌드와 사업기회 분석>, <디자인 사고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 있다. 경영대학이 주관하고 철학과, 컴퓨터공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법학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창업에 주저하는 한국의 분위기, 이제 바꿔 나가자

이경묵 교수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주저하게 된 원인에는 사회적인 제도와 분위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해서라고 한다. 더구나,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나 기술을 빼가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성장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징벌적 배상의 규모를 크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성장성이 좋은 벤처기업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기업이 벤처

기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벤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쉽게 그 시장에서 exit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창업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기존 경영학과 수업에서는 창업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거대 기업이 된 상태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가르쳤을 뿐이다. 창업의 길은 막연하고 공부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벤처경영학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장차 경영대학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창업지향적으로 바뀌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진과 창업 멘토들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iNs 9기 신재원 (13)

청년이여 도전하라 II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학생위원회

[Q] 서울대학교 벤처경영학 학생위원회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간의 연합으로 얻게 되는 창업 시너지와 창업에 있어 학문의 필요성은?

박태영(전기정보 10):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벤처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판교나 테헤란로에 가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채 운영을 시작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경영학과 공학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도진(경영 10): 물론 학문을 배우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전공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논법,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풍부한 사고와 지식 없이 여러 분야 출신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박태영: 맞다. 잠시나마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인문학, 특히 동양 고전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원리나 조직 내의 갈등 해결 방법 등이 현명하게 녹아있다.

양강민(경영 09):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으면 조별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 조별 활동을 하면 언제나 배우는 것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각을 키워갈 수 있다.

이동현(영어영문 09): 나의 전공이 창업이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는 행위 자체가 사람 간의 이해나 감정적 특징을 숙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동아리나 조별 모임도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서로가 도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Q]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기를 꺼린다. 창업의 활성화와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과 이러한 장애물을

Start Up With Us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조직된 학생위원회
이들이 바라보는 청년창업과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제거해 가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이재은(경영 11): 학업을 학생의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본분으로 보는 사회적 풍토가 문제이다.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해야지 위험한 벤처창업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신동일(경영 09): 한 번의 창업 실패는 마치 인생의 실패로 여겨진다.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해서 일어나는 오류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도 문제이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한국 시장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

양강민: 일단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는 근본적인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교육은 주로 정해진 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업에는 답이 없다. 답을 찾는 트레이닝에서만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오상록(경영 09): 창업을 결심했다라도 원활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버드나 스텐포드 대학의 경우 학부시절부터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절대적인 지원을 해 준다. 근본적인 문제는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문화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김도진: 한국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가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창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박태영: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부터 인턴이나 직업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은 학부생들조차도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 취급을 당한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

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인이 지나치게 겸손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신감 없이 협상에서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

[Q] 최근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신기술 시장으로 창업을 선도하지만 한국은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에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게 된 원인과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은?

이재은: 국내 대기업들은 신생 벤처나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감제적으로 탈취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힘들게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대기업이 금방 베껴 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김도진: 한국에서는 주로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창업은 불확실한 신기술 시장 보다는 작지만 안정적인 생계형 창업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신동일: 신기술 시장으로 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박태영: 사업적 감각과 시장 파악력을 갖춘 사람이 기술자에게 접근하고 소통하는 장벽이 낮아져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술자의 영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힘들어진다.

김도진: 동의한다. 문, 이과를 철저히 구별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영역에 관심을 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상록: 한국은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가에 공급하는 산업구조를 거처며 발전해 왔다. 이제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끌어 가야 할 때

이다. 기술형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학력자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양강민: 신기술 중심의 창업이 적은 이유를 문화적 배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던 것을 하는 '뛰는 행동'인데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남들이 안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창업 문화가 활성화 된 국가들은 대부분 서양권 국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가져야 할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박태영: 강한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초연할 수 있는 정신력이 없으면 기업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대표의 불안은 조직원에게 증폭되어 전염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김도진: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나갈 사람을 섭외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이재은: 동의한다. 신사업 연구를 위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창업자의 소통 능력에 따라 같은 사업 아이디어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을 이끌고 신뢰감을 주는 개인적인 매력도 창업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김도진(경영 10), 박태영(전기정보 10), 신동일(경영 09), 양강민(경영 09), 오상록(경영 09), 이재은(경영 11), 이동현(영어영문 09)

경영대학 홍보대사 B.GiNs 9기 유현상(09), 이희진(11)